

코린토 1,2 서(성서 34 주간)

1. 신약성경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나오며, 서간중에서는 두 번째, 세번째로 나오는 성경이다.
2. 저술시기 : 코린토 1서는 에페소에서 사도 바오로가 3차 전도여행시, 55년 혹은 54년으로 본다. 코린토 2서는 바오로가 4통의 편지를 쓴 것 중 4번째 편지를 1장-9장, 그리고 세번째 편지 중에서 10장-13장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특징 : 코린토 교회는 바오로가 제 2차 선교여행중에 50-52년 사이에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4번째로)이며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근데 3차 여행때 불미스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코린토에 편지를 쓴 목적과 주 내용은 공동체 일치를 와해시키는 파벌 조성의 무익성을 증명하며, 성도덕이 문란하고 육체를 경시하는 철학 풍조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원칙을 제시함. 초대교회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룸.
4. 코린토 서간의 저술 시기와 동기, 특징 비교

| 코린토 서간의 저술 시기와 동기, 특징 비교 | | | | |
|--------------------------|-------------------|------------------------------|---------------------------|------------------------------|
| 서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 시기 | 3차 전도여행(54년경) | 54년경 | 54-57년 사이 | 56-7년경 |
| 장소 | 에페소 | 에페소 | 에페소 | 마케도니아 |
| 상태 | 분실 | 코린토 1서 | 분실(일부: 2코린 10-13장) | 2코린 1-9장 |
| 동기 |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금지 | 1. 잘못된 행위 시정 2. 질의에 대한 응답 | 거짓 사도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도성 변호 | 코린토 신자들이 회개하여 기뻐서 세 번째 방문 계획 |
| 결과 | 변화 없음 | 모금 활동 | 신자들 회개(7,7-11) | 세 번째 방문 계획 |

5. 서간의 특성 :

| 코린토 1서와 2서의 비교 | | |
|----------------|---------------|--------------|
| 구분 | 코린토 1서 | 코린토 2서 |
| 형식 | 객관적, 실제적 | 주관적, 개인적 |
| 특성 | 초대교회의 특성을 보임 | 바오로의 성격과 사도적 |
| 내용 | 사려 깊은 훈육 | 감동적인 설교 |
| 목적 | 이교도 생활에 대한 경고 | 유다주의에 대한 경고 |

6. 구조

- 1코린토서의 구조

- ✓ 1-6장 : 코린토 교회의 분열과 그릇된 표양

- ✓ 7-15 장 : 코린토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답변
- ✓ 16 장 : 맺음말과 축복 기도
- 2 코린토서의 구조
 - ✓ 제 1-7 장 : 바오로와 코린토 공동체의 화해
 - ✓ 제 8-9 장 :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 ✓ 제 10-13 장 : 바오로의 자기 변호

7. 코린토 도시의 상황

코린토는 그리스의 항구도시다. 항구도시는 우선 인구가동이 많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다. 인파로 붐비는 유흥가도 형성되어 있다.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치고 사상과 문화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곳이다. 조용하고 안정된 공동체가 아니라 늘 외부의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해야 하는 공동체였다.

8. 코린토 교회의 문제점

- 파벌 싸움 : 먼저 사도는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에 따라 군소 집단으로 분열된 신도들을 상대한다.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 나는 아폴로 편, 나는 게파 편, 나는 그리스도 편 하고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코린 1,12)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지도자들에게 취한 자세에 따라 이처럼 신도들이 갈라져 있었다.
- 도덕적인 추문 : 풍기문란한 행동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 어떤 자는 자신의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1 코린 5,1) 어떤 자는 창녀와 어울렸다(6,16) 어떤 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이방인 재판관에게 호소하였다(6,1)
-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 그들이 겪은 갈등중의 하나는 개인적인 식사나 공동체의 식사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였다(1 코린 8 장, 10-11 장) 이런 문제는 적어도 고기를 살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다. 당시에 고기는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축제때에만 먹을 수 있었다. 여기서 교회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유주의적 경향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으로 혼란스러웠다.
- 종교적 열광주의 : 어떤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여 공동체의 일치를 저해하였다(1 코린 14, 13-19) 어찌보면 공동체에 활기가 넘쳤으나 바오로 같이 질서를 원했던 사람의 눈에는 공동체가 매우 동요되고 있었다. 코린토 신도들에게는 강한 지도력이 필요했으나 사도 바오로는 곧바로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보이게 모든 것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며 일부 그리스도인 예언자들이나 신령한 언어가 제기하는 난점들은 이 관점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말씀의 직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 부활에 대한 불신앙 : 코린토 교회에는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1 코린 15,12).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신앙은 헛되다고 말한다.

- 사도 바오로에 대한 코린토 신자들의 불신 : 코린토 신자들 중에는 바오로가 주님을 보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1 코린 9,1). 한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신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 코린 9,14)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생활하였다. 이러한 그를 두고 일부 코린토 신자들은 그가 사도로서 자격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곡해 하였다. 바오로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코린토 신자들에게 바오로는 자신이 사도적 소명과 체험을 전해준다.

9. 사도 바오로의 신학적인 답변

1) 코린토 교회의 분열과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오로는 토론의 주제인 코린토 교회의 분열을 언급하고(1 코린 1,10-17) 교회의 근거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설파한다(1 코린 1-4 장). 십자가의 복음은 걸림돌이요 어리석음이다(1 코린 1,18-25).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과 형식이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사도의 인격 안에 투영되어 있다.

- 분열의 이유 : 공동체에는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 우쭐대고 있었다(1 코린 4,6). 이 현상은 무엇보다 코린토 교회의 강한 열광주의적인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 그리스도안에서의 일치 :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므로 그 몸을 갈라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1 코린 1,13)
- 세례가 아니라 복음 선포 :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은 세례가 아니라 그의 사도직의 존재는 ‘복음 선포’ 다(1,17) => 세례를 비신화화.
- 십자가의 어리석음 : 바오로 사도는 “말씀의 지혜” 또는 “언변의 지혜” 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조시킨다. 바오로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선언한다(1 코린 1,18). 그러나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하느님의 지혜로 인정받는다(24 절). 그러나 그리스도안에 있는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도 매력적인 언변의 지혜를 추구한 나머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 표징과 지혜와 십자가(1,22-23) : 표징 중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과 대조적이다. 또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다. 바오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말한다.
-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코린토 교회 : 믿는이는 자신의 업적이든, 또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든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 바오로의 인격과 십자가(2,1-5) : 바오로는 복음을 선포할 때 달변도, 지혜도 과시하지 않는다. 지적인 허영심에 아부하는 잘 꾸며진 선포는 자신의 목표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인간이 하느님의 지혜를 거부한 이유(2,6-16) :
-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
- 교회의 분열과 참된 지혜(3,1-23)
- 상호보완적인 봉사자들(3,5-17)
- 업적과 심판(3, 12-15)
- 은총 안에서 살기(3, 18-23)
-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봉사자인 사도(4,1-13)
- 부성적 사랑과 봉사(4, 14-16)

2)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1 코린 5, 1-7,40)

- 근친상간의 경우(5,1-13)
- 이방인 법정에서의 송사(6,1-11)
- 동성애 문제(6,9)
- 창녀들과의 교제(6, 12-20)
 - ✓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 ✓ 창녀와의 결합 : 5 장, 6 장,
- 결혼과 독신(7,1-40)
- 우상숭배의 문제(8 장)

3) 바오로 사도의 자기 변증

- 그리스도의 발현 체험
- 신비 체험과 자신의 약점을 강조하는 바오로 : 바오로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약함을 본받는 것이며 바로 그 약함 안에 그의 참된 힘이 있다.
- 경주와 그 목표(9,24-27)
- 성찬례와 나눔(11,17-34) : 공동체의 식사,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한 모금, 말씀과 공동체 상호부조의 자리로서의 식사
- 코린토의 열광주의와 성령의 은사(12,1-14,40) : 그리스도의 고백, 하나이신 성령과 다양한 은사,몸과 지체,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은사는 아무 것도 아니다.사랑의 초상화, 사랑의 탁월함
- 죽은 이들의 부활(15,1-58) :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이들의 부활, 죽음의 종언과 구원의 완성,
- 마지막 권고와 인사(16 장)

10. 코린토 2 서에의 바오로 사도의 모습 요약

-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2 서에서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즐거움이 자주 엇갈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노여움에 가득 찬 편지를 쓰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을 책망하는가 하면, 기쁜 소식을 듣고서는 환희에 사로잡혀, 격분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기도 한다.

- 바오로 사도는 진정한 봉사직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3장 6절에서 진정한 신앙의 중심을 이야기 하고 있다.
-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다른 교회와의 연대성, 일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화합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 바오로 사도는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의 약함을 서슴없이 이야기 한다. 그리고 (12,2-5) 세번째 방문 계획을 이야기 하며, 이젠 코린토 신자들이 분쟁과 거만과 불륜 중에 있지 않기를 요구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간구한다.
- 마침기도로 자신의 편지를 맺는다(13, 1-13)